



### 차매예방 주간학습지 **보통말**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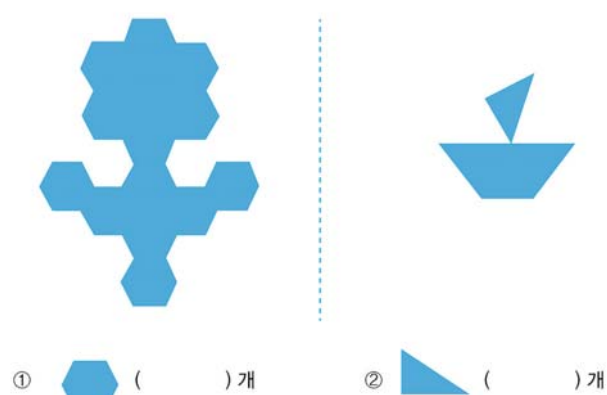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제시된 속담의 뜻과 같은 사자성어를 <보기>에서 골라 적어보세요.

<보기>	적반하장, 결자해지, 심벌지목,	고진감래, 지부작죽, 유아무야,	오비이락, 풍전등화, 과유불급,	계란유골, 우이독경, 작심삼일,	등가홍상, 어이아이, 진합태산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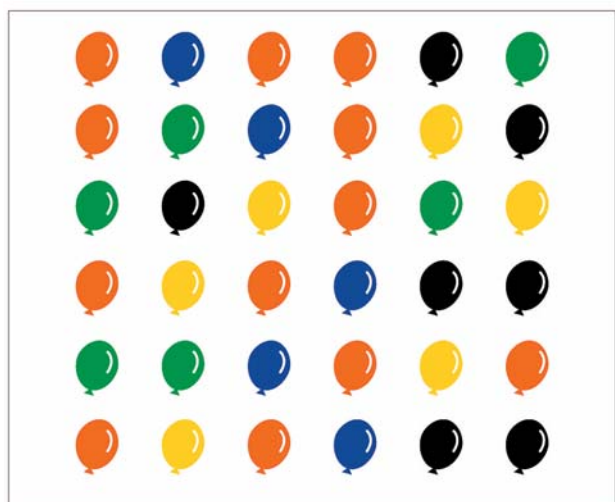
1. 방귀 편 놓이 성낸다
2. 소 귀에 경 읽기
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4.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5.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6.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7.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문제 2. 문제에 제시된 도형들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정답을 적어보세요.



① ( ) 개      ② ( ) 개

문제 3. 아래 그림의 풍선을 색깔별로 개수를 세어서 수식을 풀어보세요.



예시)  $\text{red} + \text{green} = \text{orange}$

①  $\text{yellow} - \text{blue} = \text{orange}$

②  $\text{blue} + \text{yellow} \times \text{black} = \text{orange}$

③  $\text{red} \div (\text{blue} + \text{black}) \times \text{green} = \text{orange}$

학습지 정답은 한라일보 13면 알림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적 책임 다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 이수종합건설 특별성금 기탁

(주)이수종합건설(대표이사 강성건)은 지난 3일 본사 사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성건 대표는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 책임을 다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분다클럽 총회장 이·취임식

(사)분다클럽(총회장 조건형) 총회장 이취임식이 지난달 31일 메종글래드제주 1층 컨벤션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교구장 허운스님, 대덕스님,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태석 의장, 이석문 교육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건형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나눔



과 봉사 영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덕중 졸업생에 문집 선물

안덕중학교(교장 홍성해)는 지난달 31일 열린 학교 졸업식에서 전교생이 쓴 글을 엮은 학교 문집 ‘★난 생각 별☆ 생각’을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안덕중 관계자는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손을 거친 학교 문집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졸



업 후에도 안덕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 고한유양 호주 대학입시 최고점

제주 출신 고한유(사진) 양이 호주 대학 입학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멜버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 입학했다. 멜버른대는 호주 현지 명문대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대학이다. 고 양은 제주 출신 아버지 고선만(합덕) 씨 등 가족과 6살에 호주로 이민해 학창



시절을 현지에서 보냈다. 호주 멜버른의 명문고인 헨리 타워스쿨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 중 고생 때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양은 “앞으로 한국 과 고향 제주의 전통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 ‘열린제주시’ 2월호 발간

제주시는 ‘기원’을 표지로 한 제주시정 소식지 ‘열린제주시’ 2020년 2월호(통권 제163호)를 발간해 도내·외 및 해외에 8000부를 배포한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스터로 게재해 중점 안내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제23회 제주불축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일과 열



정 사이’에서는 제주 중앙로 상점가 청년물 ‘생기발달’을 소개했으며 ‘여행감성’에서는 신흥포구 등을 소개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주시 SNS 시민기자단’ 코너에서는 제주시민 외국어 무료 강의 및 제주시 보건소 이야기 등을 담았다.

### 등정

경로당 무료 급식 제공 행사 참석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6일 경로당에서 열리는 ‘주공2단지, 삼화부영2차, 동녕경로당 무료 급식제공’ 행사에 참석할 예정.

### 복지사각지대 실태 파악

◇박순태 구좌읍장 지난 3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가정,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긴급지원가구 등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파악.

###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직원교육

◇김행석 하북동장 4일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청사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공직기강 확립·복무관리 철저 당부

◇홍재석 이호동장 지난 3일 직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를 주문.

### 대한건설협회 제40차 이사회 참석

◇장태범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 회장 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되는 중앙회 ‘제40차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

### 강중훈 시인 농민문학작가상 수상

제주 강중훈(사진) 시인이 한국농민문화회와 계간 ‘농민문학’이 제정한 제25회 농민문학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4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농민문학작가상을 받은 강중훈 시인은 1993년 ‘한겨레문학’으로 등단해 시집 ‘오소리, 오소리, 팟팟마를 오소리야’, ‘가장 눈부시고도 아름다운 자유의지의 실천’, ‘동굴에서 만난 사람’ 등을 냈다.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에 차창호씨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지난 1일자로 차창호(사진) 마케팅지원실장이 신임 제주지사장으로 부임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한 차 신임 지사장은 1990년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해 런던지사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마케팅지원실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제주지사장으로 부임했다.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기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이 제품은 '연말까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GN0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